

ΟΜΙΛΙΑ ΣΤΟΥΣ ΑΓΙΟΥΣ ΚΥΡΙΑΛΛΟΝ ΚΑΙ ΜΕΘΟΔΙΟΝ ΦΩΤΙΣΤΕΣ ΤΩΝ ΣΛΑΒΩΝ 11 Μαΐου
ΚΟΡΕΑΤΙΚΑ

슬라브 민족에게 정교회의 빛을 밝혀준 성 끼릴로스와 성 메토디오스 사도 대등자

2020. 5. 10

해마다 5 월 11 일에 축일을 지내는 성 끼릴로스와 성 메토디오스 두 형제가 펼친 선교 사역은 무척 경이롭습니다. 이분들은 중앙 유럽의 광활한 지역인, 체코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그리고 나중에는 러시아에까지 선교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당시 물들어있던 우상숭배와 의롭지 않은 이교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교화되고 문명화되었습니다. 후에 사도 대등자란 호칭이 붙게 된 두 성인은 선교지역에다가 그리스도교의 신앙적인 기초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슬라브 민족의 문화계몽을 위한 기초도 세웠습니다.

끼릴로스는 827 년에 그리고 그의 형인 메토디오스는 815 년에 테살로니키의 품격 높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했으며 모두 좋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스(수도자가 되기 전 끼릴로스 성인의 이름)는 그후 저명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슬라브어를 포함하여 8 개 언어를 구사했으며, 이런 연유로 포티오스 총대주교는 그를 콘스탄티노플에 설립된 슬라브 연구소 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한편 끼릴로스의 형 메토디오스는 슬라브 민족이 주로 살던 발칸반도의 스클라비니아(Sclavinia) 행정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때 슬라브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수도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고, 행정관을 사임한 후에 비티나에 있는 올림푸스 수도원에서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끊임없는 기도, 영적 서적의 연구, 그리고 영적 단련을 통해 훗날 하느님께서 위대한 사업을 위해 쓰이기 될 때에 필요한 영적 결실들을 얻었습니다.

포티오스 세계 총대주교는 콘스탄티노스, 즉 끼릴로스의 능력을 높이 인정하여 그에게 다양한 교회 임무를 맡겼으며, 성인은 이를 성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임무 중에는 헤르소나에서 200 여 명의 슬라브인 상류층에게 교리 공부를 가르쳐 세례를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이 기초가 되어 100 여년 후 러시아 전역에 정교회가 전파되었고, 교회의 위대한 발전을 향한 조건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끼릴로스는 헤르소나에서 슬라브인들과 소통하는 일이 너무도 힘들었는데, 그 이유는 슬라브 민족은 문자가 없어서 글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이 선교 사업에 큰 방해가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총대주교께서 형인 메토디오스와 함께 모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었을 때, 슬라브 문자를 만들어 네 권의 복음서와 사도 바울로의 서신들, 그리고 교부들의 일부 문헌들과 기본적인 예식서들과 성찬예배서를 번역하여 기록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863 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끼릴로스는 메토디오스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모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끼릴로스는 슬라브어로 번역된 거룩한 복음서를 모라비아의 통치자 라스티슬라브(Rastislav Moravia) 황제에게 선물했고, 그의 큰 만족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미카엘 3 세 황제가 요청했던 것이 비로소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대등자로 잘 알려진 두 선교사 형제는 슬라브어 문자와 문법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성서를 기본 텍스트로 사용하여 슬라브인 교회 협력자들을 훈련했으며, 가장 합당한 이들에게 사제 서품을 주었고, 나라 전역에서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선교 사역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모라비아의 라스티슬라브 황제의 후계자 때문에 많은 난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869 년 끼릴로스는 메토디오스와 함께 로마에 갔고 교황에게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끼릴로스는 로마 방문 중에 안식했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반면에 메토디오스는 시르미오 대주교로 서품을 받고나서도 선교사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슬라브 민족이 정착해서 살고 있던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직자를 계속 양성해 나갔습니다. 그 후 메토디오스는 그곳에서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고, 2 년 동안 감옥에서 갇혀지내던 끝에 885 년에 안식했습니다.

형제였던 성 끼릴로스와 성 메토디오스가 펼쳤던 선교와 문화사업으로 인해 슬라브 민족이 얻었던 특별한 혜택과 두 성인이 보여주신 선구자적인 모든 활동을 이 짧은 강론에서 다 설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역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사도 대등자들은 하느님께서 교회를 통해 맡기신 성스러운 사업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생애를 다 바쳐 일하셨습니다. 어려움과 박해, 지속적인 방해가 계속됐지만 이런 것들로 그분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 메토디오스는 동생인 성 끼릴로스가 안식했을 때나, 자신이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았을 때도 결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돌아가 침묵의 삶을 살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두 형제는 죽을 때까지 굳건히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즈미르나 주교에게 말씀하신,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너에게 씌워 주겠다."(요한묵시록 2:10)는 말씀을 굳건히 따랐습니다.

두 분 성인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수행하면서 겪는 수많은 장애물과 유혹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노력을 포기하지 맙시다. 어려움이 있어도 학생은 학업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학업을 마쳐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충실해야 하며 삶이 끝날 때까지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중에 교회를 위한 일이나 사회에 이익이 되는 일에서나 직업 업무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책임감 있게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영적 훈련을 멈추지 않도록 합시다. 비록 우리가 하고 있는 갖가지 일들의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끝맺음할 때, 우리도 주님처럼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일을 다하여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요한 17,4)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인내하여 끝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길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양심으로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크게 만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